

코로나 19에 호텔·여행 등 '심장(HEART)' 업종 직격탄

코로나19 여파로 '심장(HEART)' 업종으로 분류되는 업체들의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HEART'는 호텔(Hotel), 공연·영화·예술 등을 포함한 엔터테인먼트(Entertainment), 항공(Air), 여가·스포츠·오락 등이 포함된 레크리에이션과 음식점(Recreation·Restaurant), 여행(Travel) 등이 포함된 업종을 의미한다.

13일 한국CXO연구소가 발표한 '코로나 경제 위기 상황에 주요 대면 업체 50곳의 지난해 반기 대비 올 동기간 경영 실적 비교 분석'에 따르면, 'HEART' 업종에 있는 주요 50곳의 올 반기 매출은 지난해 동기 대비 평균 40% 넘게 줄었다고, 6900억원 넘던 영업이익도 1년새 1조2200억원 이상 손실을 봤다.

대면 산업군에 포함되는 HEART 업체는 금융감독원에 반기보고서를 제출하는 주요 회사 50곳이다. 조사 결과 코로나 정국에 심장(HEART) 업종에 포함된 주요 50곳의 지난해 상반기 매출액 규모는 19조2258억원이었다. 그러나 올해 같은 기간 매출은 11조2135억원으로 감소했다. 1년새 41.7%에 해당하는 8조124억원이나 되는 매출이 사라져 버린 셈이다.

HEART 업종 중에서도 '여행(Travel)' 관련 업체들의 피해가 심각단계에 접어들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대상 7개 주요 여행사들의 평균 매출액은 59.7%나 줄며 급전직하(急轉直下)했다.

대표적으로 '자유투어'는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169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지만 올해 같은 기간에는 31억원으로 81.4%나 매출이 고꾸라졌다. 하나투어(73.9%), 모두투어(71%), 롯데관광개발(68.8%), 세종(66.3%), 노란풍선(55.9%)로 1년새 매출이

CXO연구소, 코로나19 위기에 대면 업체 50곳 경영 실적 분석

코로나에 호텔·엔터테인먼트 등 'HEART' 업종 피해 눈덩이

작년 6900억 영업이익 낸 심장업종 50곳, 올해 1조2200억 적자

반토막 넘게 폭삭 주저앉았다.

여가·스포츠·오락 등이 포함된 레크리에이션과 음식점(Recreation·Restaurant) 업종에 포함된 11곳도 매출이 평균 51.4% 하락했다. 이 중에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비유될 정도로 수익성이 좋았던 카지노 업체들도 대거 포함됐다.

강원랜드는 지난해 반기 때 7401억원 상당의 매출을 기록했으나 올해는 2702억원으로 63.5%(4699억원)나 매출이 하락했다. 파라다이스(-41.1%), 그랜드코리아레저(-40.5%)도 40% 넘게 감소했다.

레스토랑 등을 포함한 음식점 업체도 비슷한 상황이다. 대표적으로 450곳 이상의 음식점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보유한 코스닥 업체 디답은 지난해 상반기에만 해도 매출이 600억원 정도였지만 올해는 401억원으로 33.2%나 빠졌다. 코로나19로 인해 외식 횟수가 줄어들어 관련 업체들도 매출 하락을 피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연·영화·예술 등을 포함한 엔터테인먼트(Entertainment) 업체 20곳도 평균 매출이 1년 새 48.1% 증발했다. 영화 상영관을 다수 운영하고 있는 CJ CGV는 지난해 상반기 매출이 5076억원인데 올해는 1638억원으로 67.7%(3437억원)↓ 급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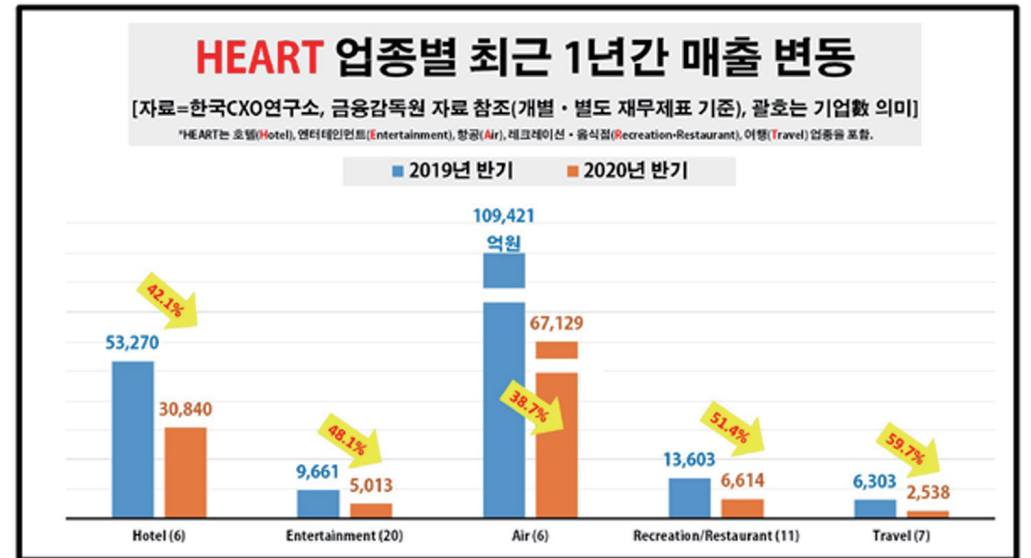
키위미디어그룹은 지난해 상반기 167억원

매출에서 올해는 15억원으로 무려 90.7% 폭락했다. 에이스토리 역시 183억원에서 44억원으로 76%나 되는 매출 타격을 봤다. 캐리소프(-67.2%), 초록뱀(-57.3%), 이매진아시아(-53.5%), 세기상사(-50.8%), 위지웍스튜디오(-50.3%) 등도 매출이 반토막 났다.

주요 호텔(Hotel) 업체 6곳도 코로나에 정국에 매출이 평균 42.1% 급감했다. 대표적으로 호텔롯데는 2조8048억원에서 1조5533억원으로 44.6%(1조2515억원)나 매출이 줄었다. 아난티 코브 호텔을 비롯해 리조트 등을 운영하는 코스닥 기업 아난티 역시 지난해 매출 363억원에서 올해 같은 기간 211억원으로 41.8%(152억원)↓ 떨어졌다.

이외 웨하튼 서울 팰라스 강남 호텔을 운영하는 서주산업개발도 188억원에서 111억원으로 40.9%(77억원)↓ 하락했다. 호텔신라도 매출 감소를 피하지 못했다. 지난해 상반기 2조1116억원 올리던 매출은 올해 같은 기간에는 1조2589억원으로 40.5%(8576억원)↓ 떨어졌다. 호텔 업체들 중에는 면세점을 운영하는 곳도 있어 코로나19로 인해 면세사업도 매출 하락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항공(Air) 업체 6곳도 코로나로 인한 매출 감소를 겪고 있다. 항공 업체 6곳의 평균 매출은 38.7% 감소했다. 진에어는 5040억원에



서 1671억원으로 1년새 매출이 66.8%(3369억원)↓ 줄었고 에어부산(-64.6%), 제주항공(-62.5%), 티웨이항공(-58.9%)도 절반 넘게 매출이 감소했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6조622억원에서 올해 4조432억원으로 33.3%(2조189억원)↓ 감소했고, 아시아나항공도 2조9188억원에서 1조9480억원으로 30%(9700억원)↓ 이상 매출이 하락했다.

여행업종도 감소했다. 항공 업체들의 지난해 반기 때 영업이익 규모는 1008억원 수준이었지만 올해 같은 기간에는 4006억원이나 영업이익자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제주항공은 지난해 반기 때 300억원 올리던 영업이익이 올해 같은 기간에는 1481억원이나 영업손실을 보며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졌다.

엔터테인먼트 관련 업체들도 지난해 상반기 306억원 올리던 영업이익은 올해는 1085억원 손실로 전환됐다. 특히 CJ CGV는 지난해 반기

때 233억원 영업흑자를 기록했으나 1년만에 1030억원이나 되는 적자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레크리에이션 및 음식점 업체도 같은 기간 2800억원하던 영업이익이 2471억원 적자로 뒷걸음질 쳤다. 여기에는 강원랜드 영업손익 하락 영향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강원랜드는 지난해 상반기만 해도 영업이익이 2986억원이나 됐지만 올해는 겨우 2901억원 영업손실을 봤다. 지난해 반기 때 벌어들인 영업이익을 1년새 모두 잃어버린 셈이다.

여행과 호텔 업체도 큰 폭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여행 업체는 지난해 상반기만 해도 419억원 하던 영업이익은 올해 같은 기간에는 493억원 적자로 뒤집어졌고, 호텔 업체도 2378억원 흑자에서 4162억원 적자로 전환됐다.

서선욱기자

20대는 마통·40대는 집 담보로 '빚투'...주식에 '올인'

자영업자 최다...전업주부가 직장인 앞서기도

최근 빚투(빚내서 투자) 열풍이 거센 가운데 투자자금 마련을 위해 20대는 마이너스 통장을, 40대는 담보 대출을 주로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인크루트(대표 서미영)와 비대면 알바채용 바로면접 알바콜이 공동으로 '빚투 경험'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다.

이달 7일부터 8일 양일간 총 753명이 참여했다. 먼저 참여자 가운데 71.2%는 '올해 재테크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그 가운데 ▲'빚내서 투자한 응답자 비율은 17.9%로 집계됐다. 상태별로는 ▲자영업자(26.3%) 비율이 가장 높았고 ▲전업주부(18.8%) ▲직장인(14.5%) ▲대학생(9.4%)이 뒤를 이었다. 연령별로는 ▲40대(30.4%) ▲30대(16.2%) ▲20대(7.63%) 순으로 확인됐다.

대출수단은 ▲직장인대출, 마이너스통장 등 '신용대출'이 51.6%로 과반에 달했고 ▲'담보대출' 및 '지인 통해 차용'한 비율이 각 24.2%로 동률을 이뤘다. 연령별 자금조달 방법에도 차이를 보였는데 ▲신용대출 비율은 '20대'(56.7%)에서, ▲담보대출은 '40대'(30.8%)에서 각각 가장 높았다.

아울러 대출규모(주관식답변)로는 ▲담보대출을 통해 평균 8882만원을, ▲신용대

출 평균 2296만원, ▲개인차용 평균 1487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렇게 조달한 빚투 자금은 어디로 향했을까? 조사결과 빚내서 투자한 재테크 항목은 ▲'주식'(40.7%)이 1위에 꼽혔다. 세부적으로는 ▲코스피, 코스닥 등 '국내주식'(61.5%) ▲다우, 나스닥 등 '해외주식'(28.8%) 그리고 ▲'공모주 청약'(9.6%) 순으로 주식매수에 빚투 자금을 할애했다.

이어서 빚투 자금은 ▲부동산(33.3%)에도 쏟겼다. 부동산 빚투의 경우 ▲실소유 목적의 내 집 마련에 17.0%, ▲건물·토지·분양권 구매에 16.3%로 투자 성격에 차이를 보였다. 그런가 하면 ▲가상화폐(9.6%) ▲채권·외환, 금(각 6.7%) ▲은(3.0%) 등 추가 투자처도 확인됐다.

이렇듯 대학생부터 전업주부까지 빚투 내가며 투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응답자들은 ▲'주식 투자 적기라고 생각해서'(32.5%)를 첫 번째 이유로 꼽았다. 빚투 열풍의 중심에 주식을 빼놓을 수 없다는 것으로, 연초 코로나 저점 이후 일명 동학개미가 대거 출연하기도 했다. 다음은 ▲'저금리로 이자 부담이 적어서'(23.5%) ▲'자본금이 전혀 없지만 투자는 하고 싶어서'(18.7%) ▲'현재 금



여, 소득 외 추가수입이 필요해서'(17.5%) 그리고 ▲'주변에서 다들 하는 분위기라서'(6.0%) 등의 이유가 이어졌다.

결론으로, 잠재적 빚투 희망자들도 발견됐다.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향후 빚내서 투자할 의사가 있느냐"고 묻자 33.2%는 ▲'그렇다'고 답한 것으로, 대한민국 빚투 열풍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신봉우기자

롯데제과, '우리쌀 빼빼로' 출시

국산 농산물 활용 앞장

롯데제과가 농협과 손잡고 이전쌀로 만든 '우리쌀 빼빼로'를 선보였다. 올해부터 시작한 '지역 농산물 상생 프로젝트'의 첫 번째 사례다. 빼빼로 이름을 걸고 추진하는 사회공헌 사업은 스위트츄, 스위트스쿨, 스위트피크니, 영양지원 사업, 기부 캠페인 총 6개로 늘었다.

우리쌀 빼빼로는 막대과자에 쌀가루와 빵쌀을 화이트초콜릿과 함께 입혔다. 일반 빼빼로보다 크기가 크며, 1개씩 날개로 포장했다. 포장지를 뜯을 때부터 쌀 특유의 달콤하고 고소한 풍미가 느껴진다. 전국 농협에서만 판매하며, 소비자가 6000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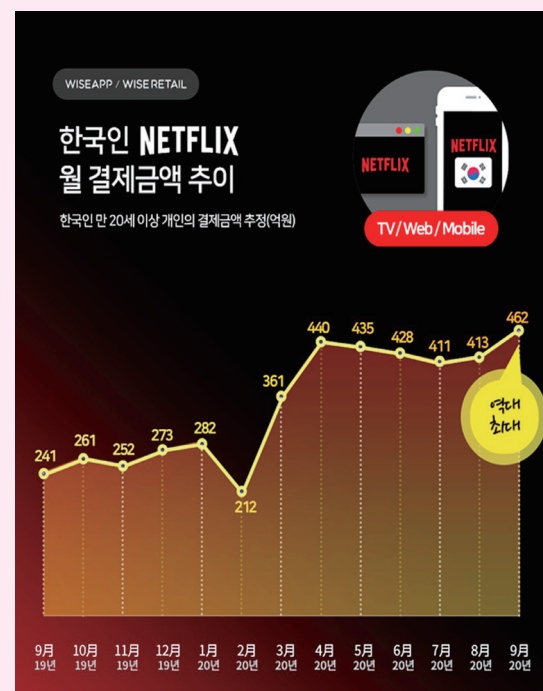


제품 개발자는 "우리쌀 빼빼로는 한정판이다. 반응이 좋으면 추가로 선보일 예정"이라며 "국산 농산물을 적극 활용해 소비 촉진을 돕겠다"고 했다.

기동취재본부

9월 넷플릭스 카드결제액 역대 최대

코로나19 사태로 '집콕족' 급증으로 인한 상승세



크카드로 결제한 금액이 462억원을 기록했다고 13일 발표했다.

이는 역대 최고 규모다. 같은 기간 결제자는 336만명으로 추정됐다.

2018년 9월 결제금액 63억원, 결제자 49만명에서 2019년 9월 결제금액 241억원, 결제자 184만명으로, 올 9월에는 결제금액 462억원, 결제자 336만명까지 늘어난 것이다.

같은 기준으로 한국인 넷플릭스 유료 사용자는 1인당 월평균 1만3775원을 결제했다.

결제한 사람 중 20대가 38%, 30대가 25%, 40대가 19%, 50대 이상이 18%였다.

와이즈앱 관계자는 "한국에서 넷플릭스 유료 결제는 카드 결제 외에도 통신사를 통해 요금을 합산 지불하거나, 아이튠즈 등에서 결제하는 사용자도 있다"며 "해당 유료 고객까지 포함되면 넷플릭스 유료 사용자와 결제금액은 더 많다"라고 말했다.

최이슬기자

집값·전셋값 폭등에 빚만 늘어...9월 가계대출 역대 최대 ↑

은행 주택담보대출, 6조7000억원 증가...전월보다 증가폭 확대

9월 은행 가계대출이 10조원 가까이 늘어나 2004년 이후 역대 두번째로 높은 증가세를 이었다.

금융당국의 '신용대출 옥죄기'로 기타대출 증가세가 주춤해졌지만, 집값·전셋값 폭등에 전세대출을 비롯한 주택담보대출이 큰 폭 증가한 영향이다.

한국은행의 13일 발표한 '2020년 9월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9월 은행 가계대출은 전월대비 9조6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한은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4년 이

후 9월중 역대 최대 증가 규모다. 월별 기준으로는 지난 8월(11조7000억원)에 이어 역대 두번째로 가장 많이 늘어났다.

은행 주택담보대출은 6조7000억원 증가하면서 전월(6조1000억원)보다 증가폭이 확대된 모습을 보였다. 9월중 역대 가장 많이 늘었다.

치솟은 집값과 전세값을 빚으로 감당하려는 수요가 지속 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윤옥자 한은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 과장은 "주택매매와 전세자금 수요가 지속된 가운데 주승인 집담대출 실행이 늘어나 주택담보대출

증가규모가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전세대출은 3조5000억원 늘어 지난 2월(3조7000억원)에 이어 역대 두번째로 높은 증가 규모를 나타냈다.

신용대출과 마이너스 통장 등 기타대출 증가세는 한풀 꺾였다. 지난달 3조원 늘어 한 달 전(5조7000억원)보다 증가폭이 축소됐다.

공모주 청약을 위한 '빚투(빚내서 투자)' 열풍에 관련 자금 수요가 이어졌지만 추석 상여금 등이 유입된 영향으로 풀이됐다.

금융당국의 신용대출 관리 노력 등도 일부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김민정기자